**2. 오가신잔 전승관: 공연, 시작 인사(2)**

신잔에서는 나마하게가 집에 들어가기 전 7번 발을 쿵쿵 구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는 아이는 없느냐?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없느냐?’라고 소리치며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가장은 나마하게를 위해 요리와 술을 준비하고 앉도록 부탁합니다. 나마하게는 5번 발을 쿵쿵 구른 후, 이에 따릅니다. 그다음 나마하게는 그해의 수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가장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더 발을 구르고 다시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발을 구르는 횟수인 7, 5, 3이라는 숫자의 조합은 일본에서는 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마하게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 종종 입고 있는 의상에서 볏짚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볏짚은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날 밤에는 바닥에 남겨둡니다. 특히 긴 볏짚을 머리에 두르면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두뇌가 명석해진다고도 합니다. 공연 후에는 떨어진 볏짚을 줍는 것은 상관없으나, 나마하게에게서 볏짚을 뽑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볏짚을 뽑으면 나마하게에 깃든 신이 도망가 버리며 볏짚의 효력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공연은 수십 년 전, 신잔에 나마하게가 방문한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이나 좋은 각도로 촬영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연자가 있는 대기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유롭게 공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